

國際動向



WIPO 總會, PCT 國際

手數料 引上 合議

서울 工業所有權세미나 개최도 확정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 本部에서 開催된 世界知的所有權機構總會는 86년부터 2年間に 걸친 PCT 國際手數料를 8% 引上키로 결정했다.

또 이번 總會에서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開催되는 『産業化戰略과 特許制度의 役割』에 관한 세미나를 확정하고 일부 연사의 製정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도 점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또 WIPO 事務次長 Pozio 씨 등 2名과 22個國 代表가 참가토록 했다.

이번 總會에서 現事務總長 복시는 6年間 임기의 차기 事務總長에 連任 되었으며 現 事務次長 3名도 차기 次長으로 選出됐다.

또 84~85年 WIPO의 事業活動報告 86~87年 2年間 사업계획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半導體칩 및 遺傳工學 등 최신기술의 保護制度수립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 著作物 무단복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WIPO內 政府間 專門家委員會를 설치 파리協約 관련 條項을 심의검토하고, 各國의 國內法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87年 總會에 건의키로 하는 등 偽造商品 防止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韓國의 市場開放 확대 촉구

볼드리지 美 商務長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 통해

「멜컴 볼드리지」美 商務長官은 10月 31日 韓國이 컴퓨터·보험시장·知的所有權 및 영화 등 美國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대해 市場을 더 公開해야 할 것이라고 促求하면서 美國 역시 채무국들이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市場을 계속 그

들에게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드리지」商務長官은 이날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美 무역정책에 관한 연설을 한 후 韓國이 輸入自由化措置를 발표하는데 대한 論評을 기자들로부터 요구받고 이같이 말하고 『최근 美國의 保護貿易措置가 특히 「아시아」 우방국들의 安保를 저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安保위협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美國은 해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貿易措置를 참아왔다고 말했다.

「볼드리지」長官은 「레이건」大統領이 막강한 힘으로 美 74通商法 301條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美國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 구제책을 건의하는 「기동타격대」의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히고 「레이건」大統領이 301條에 따라 日本의 담배수입 제한과 「브라질」의 컴퓨터 규제, 韓國의 보험시장제한 및 知的所有權 保護위반, 「유럽」의 소맥수출보조금 지급 사태를 조사토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新라운드」에서

知的소유권 保護

美國 提案에 日本 동조

美정부는 최근 新라운드 (다각적 무역교섭)에서 知的所有權 保護에 대한 통일된 基準을 制定하자고 提案했다.

이 조항의 주요내용은 하이테크(尖端技術) 분야의 무역·투자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해 ▲화학제품·가공식품 등의 特許權을 보호강화하며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知的창작물을 보호하고 ▲知的所有權의 사용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강제裁定」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日本정부는 日本의 하이테크 무역 확대에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美제안에 동조,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개발도상국들을 설득키로 했다

美정부의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구상은 U

國際動向



STR(美통상대표부)이 10月初 東京에서 열린 日本통상성과의 비공식협에서 표명했다. 知的所有權保護에 관한 논의는 금년 2月 東京에서 열린 美·日·캐나다·EC의 4각통상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후 美정부는 特許權·著作權·商標權 등 知的所有權의 보호가 세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조항제정을 제안했다.

또 레이건大統領은 지난 10月 16日 韓國의 知的所有權制度가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명령, 이 문제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美, 知的所有權制度 전면검토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특별리포트

최근 美大統領 委員會는 尖端技術에 있어서 美國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工業所有權保護가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特許制度가 부적당하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유전자공학등의 신기술에 대한 特許保護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美國의 知的所有權에 관한 특별리포트에서는 이같이 지적하고 美國의 知的所有權制度의 약점으로 特許期間, 프로세스特許의 保護, 바이오테크놀러지의 保護, 侵害訴訟, 反트러스트法 라이선스에 의한 特許有效性의 공격 特許再審査, 情報公開制度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 리포트는 美國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1955년부터 1980年 사이에 OECD의 기술 집약제품 수출에서 美國이 점유하는 비율이 35.5%에서 19.9%로 낮아졌다. ②1960년부터 1980年 사이의 첨단기술제품에 있어서 日本과의 무역적자는 거의 7배, 즉 5억달러로부터 32억 2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③1962년부터 19

80年 사이의 첨단기술의 수입은 수출에 대한 비율로 22.2%에서 51.8%로 증가하였다. ④1970年대에 있어서 모든 첨단기술에 있어서 美國이 점유하는 비율은 컴퓨터를 제외하곤 떨어졌다.

이와 같은 국제경쟁력의 저하는 GNP에서 차지하는 R&D비용의 저하(1970年대에 약 10% 저하하였고, 1977~78에는 2.23%로 저하) 및 美國特許에서 점유하는 美國人 발명자 비율의 저하(1972년부터 82年 사이에 34%저하)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에 반하여 R & D 비용을 착실히 증가시키고 있는 일본은 미국 특허에 있어서 日本人 發明者의 비율을 45% 증가시키고 있다.

美·日·歐 特許廳長會議 盛了

工業所有權 運用의 調和會議

美國·日本·EPO 3國간의 特許廳長會議가 지난 10月 14~15日 양일간 東京 通產省에서 열렸다.

特許情報의 교환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會議에서는 ▲特許業務의 자동화 ▲特許情報의 전자화 및 교환 ▲자동번역 ▲特許수속·운용의 調和 등 4가지 사항에 會議를 보았다.

특히 이번 東京會談에서는 人力의 부족과 정보의 洪水를 해결하기 위한 特許審査情報의 洪水를 해결하기 위한 特許審査의 「페이프레스화」에 공동으로 연구하고 電算화된 정보의 交換과 표준화의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토의했다.

또 特許情報은 光디스크에 의하여 데이타베이스화가 되고 각국이 정보교환을 행할 경우에는 共同使用하는 磁氣테이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로써 전세계 特許出願의 약 80%를 차지하는 USPTO, 日本特許廳, EPO가 중심이 되어 協力하고 特許情報의 電算化를 추진함으로써 각국간에 마찰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日, 工業所有權協力센터 發足

— 重復出願 및 特許紛爭 防止 위해 —

日本 特許廳은 半導體 칩 登錄業務와 特許情報의 분류 및 수속을 위한 財團法人「工業所有權協力센터」(IPCC)를 設立하기 위한 設立準備委員會를 지난 11월 1일 정식 發足했다.

이 機關은 特許廳의 페이프레스化 計劃을 실현하고 特許審査에 필요한 特許·技術資料 약 3천만건을 데이터 베이스化할 예정이다.

이로써 日本 特許廳은 審査官 및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로만 행하여 옴으로써 빚어진 重復出願과 特許紛爭을 防止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先發明者主義 등 論議

— 日 特協, 訪美 代表團 파견 —

日本 特許協會는 지난 9월 30일부터 2주간 特許문제에 관한 訪美 代表團을 파견, 美國 등이 채택하고 있는 先發明者主義 및 特許期間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마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은 최근 美·日간의 통상마찰이 심각화됨으로써 特許制度의 調和가 시급하다고 인식, 代表團을 USPTO, ITC, CAFC를 방문, 美國 特許制度에 따른 日本 산업계의 영향을 설명하고 美國制度의 운용상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代表團은 全 美國 製造協會와도 문제점을 논의하고 시카고에서 열린 太平洋工業所有權協會의 총회에도 참석, 特許分野에 대한 양국산업계와의 친밀화를 도모했다.

또 이 총회에서 日本代表團은 日本의 工業所有權法의 改正動向,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가 著作權法에서 보호하게 된 경위를 美國企業에 설명하는 등 日本의 입장을 美國기업에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日간의 特許制度상의 마찰은 美國이 채택하고 있는 發明完成의 시점을 權利發生의 기준으로 정한 先發明者主義인데 그중 發明日의 立證에 관해 外國인에게 不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日本 產業界의 주장이라고 한다.

또 特許期間이 査定日로부터 판단됨으로써 진보된 特許技術이 상당히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는지 外國인에게는 特許出願 수속이 發明자에게만 인정되고 승계인에게는 인정치 않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日本의 통상성도 美·日간의 마찰이 되고 있는 特許權 侵害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日, 異議申請기간 연장

— 工所權 審議會 總會서 決定 —

日本의 工業所有權 審議會는 總會에서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에 대해 協議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檢討 決定했다.

▲ 特許·實用新案의 出願인이 1회의 出願으로 기술항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

▲ 第三者가 特許·實用新案을 無效化하는 異議申請期間(현행 2월)을 연장한다.

日·中共 공동特許出願

— 農業用 신항생물질 2가지 —

日本科學技術廳과 中共化學工業部는 日本 理化學研究所와 上海農業研究所가 共同 發見한 벼 잎마름병 등에 有效한 2가지 農業用 신항생물질에 관해 共同으로 特許를 出願했다.

이는 中共이 지난 4월에 特許法을 制定한 후 日·中科學技術協力 協定에 기초한 첫 共同 研究成果라고 한다. <☞>